

증거자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본문: 요한복음 1:2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증거자가 가장 핵심 적으로 증거해야 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증거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9절은 요한의 증거의 최절정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35-36절에서 다시 반복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를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가 의도했던 바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따르지 않고 어린양을 따르기를 바랐다(계14:1-4절을 보라)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I.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호와, 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죄를 짊어 지실수가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인간의 죄를 짊어 지실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히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이제 우리는 그가 육신을 입은 중심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다.

요한은 요한일서 3:5에서 이렇게 기록 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요한은 성육신의 중심 이유를 증거 하고 있다.

여기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을 왜 첨가 했는가? 왜냐 하면 구약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이라야 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레위기 4:32-35: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시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신실한 신자들은 짐승의 피가 진실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히 10:4) 그 모든 죄 사함의 방식은 최후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희생을 내다 본 것이다. 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내심으로 영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히브리서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베드로도 증거 했다

벧전 1:18-20: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이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이지 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 하신 것이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II. 죄가 없으신 예수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의 죄가 상속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보통의 생식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이야기가 눅 1:30-35에 나온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탄생 하셨기 때문에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과 같이 죄는 없는 것이다. 원죄도 없고, 그 자신의 행위 가운데 실행 죄도 없으시다. 요한복음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 하신다. 그 대답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다” (벧전 2:22; cf. 히4:15; 롬 8:3).

Ⅲ. 어린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고 요한 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충격적인 의미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오늘에도 적용 된다.

첫째, 하나님-인간이 죽는 다는 것이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양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다-be slaughtered (see the Greek sphazō in Revelation 5:6, 9, 12; 13:8). 즉 피 흘려 속죄 제물로 죽는다는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죽으셨고, 수많은 양이들이 속죄제로 죽었는데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다. 특히 어린양으로 죽으심은 피 흘림이 강조 된다(계시록 5:9). 예수님의 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의 효력은 죄책과 죄의 오염을 해결한다. 죄책은 심판을 가져 오고 죄의 오염은 하나님과의 교재를 막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책이 해결 될 뿐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과 날마다 죄의 어명으로부터 깨끗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둘째는 유대인 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은덕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이 유대인의 메시아 이었다(see John 1:41).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것이다. 그를 어린양으로 불리운 것은 그가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어린양일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두 가지 진리 그의 죽으심과 온 세상을 위한 죽으심에 대한 진리가 요 11:50-52절에 나와 있다. 제사장 가야바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요 유대인 뿐 아니

라 세상에 흠어져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언 한 것이다.

요한일서 2:2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이라는 의미는 그의 죽으심이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양은 죄를 없이 하고 진노를 제거함으로 유대인 뿐 아니라 흠어져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

“...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5:9)

요한복음 3:36에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이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였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만약 그들이 믿으면 그 어린양에 의하여 그들의 죄가 제하여 진다. 만약 그들이 믿으면 어린양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다. 어떤 종족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분도 제외 되지 않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가 사해 지고(요한복음 1:29, 요일3:5),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셨고**, 보통 생식법으로 탄생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의하여 처녀의 몸에서 탄생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세상의 죄를 위하여 어린양으로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린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어린양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하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어린양으로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시간 제 마음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3: 20에서 이렇게 약속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세례요한과 같은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